

인간과 하천

4

River & Culture



김 상 선 | 현대엔지니어링(주)
(oksskim@hec.co.kr)

우리 마실 하천이야기

화양강의 낭만

내가 어릴 적 살던 곳은 강원도 홍천이다.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그 초등학교 시절 자주 놀러갔던 곳이 화양강이다. 어릴 적 시절에는 지금과 달리 놀이문화가 별로 없어 넓은 운동장이나 강 백사장에서 따가운 햇볕 아래 뛰며 나뭇굴고 노는 게 제일 큰 재미였다.

화양강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도 어느 마을의 조그마한 하천일 것이라 지레짐작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홍천에 있는 화양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홍천강의 또 다른 이름이며, 홍천사람들은 홍천강을 화양강이라고 불렀다. 현재는 인터넷을 뒤져도, 지도를 찾아보아도 화양강이라는 하천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홍천을 지나 인제

로 가는 국도 하천변 언덕에 서있는 화양강휴게소가 있어서 그 정도로 여기가 '화양강이었구나' 하고 짐작만 할 뿐이다.

그래서 난 몹시 궁금해졌다. 내가 어렸을 적에 동네아이들과 함께 놀던 곳이 분명히 화양강이었고 홍천초등학교 교가 중에도 그 이름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른 이후에 물론 내가 홍천에 살지 않아 그렇지만 화양강이라는 이름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신기했다. 분명히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은 홍천 읍내를 휘감아 흐르는 하천을 화양강이라고 하였는데……. 안타까웠다. 화양강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홍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화양강이 지금의 홍천강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질문하

여 보았다. 이렇게

제목 화양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70년대 홍천국민학교(초등학교) 다닐 때 홍천 읍내를 흐르는 강의 이름이 화양강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도에는 홍천강으로 되어 있네요. 연봉교를 지나서 북방면 고개 밑으로 흐르는 강이 화양강인가요 홍천강인가요? 홍천국민학교 교가에도 석화산하고 화양강이 나온 걸로 아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최흥식) 그러게요~ 제가 알기로는 홍천읍 시가지 상류를 화양강이라고 하고, 하류를 홍천강이라고 호칭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 기회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댓글을 달아 주시면 좋겠네요~ ^^

함태식) 저도 홍천이 고향이나 지금은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이렇게 가끔씩 사이트를 방문하여 향수를 달래봅니다. 님이 말씀하신 화양강과 홍천강의 개념 차이는 노래 "소양강 처녀"에 나오는 소양강과 북한강의 차이와 같습니다. 즉, 강의 본류 개념은 북한강이요, 북한강의 지류 개념에는 소양강입니다. 홍천강은 본류 개념이요, 화양강은 홍천강의 지류입니다. 홍천강은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에서 발원하여 홍천 읍내를 지나 서면을 거쳐 북한강으로 흘러갑니다(그러므로 한편 홍천강은 북한강의 지류 개념이기도 합니다). 화양강은 홍천강 중에서 홍천 시내지역만을 한정해서 부르는 작은 개념으로써 홍천읍 하류에서 다시 성동천, 오안천 등의 지류를 더 합쳐서 홍천강이라는 큰 개념의 강줄기가 되는 것입니다(화양강, 덕치천 등 이런 지류를 모두 뭉뚱그려서 본류인 홍천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홍천강은 지류나 본류가 모두 특이하게도 홍천 10개 읍면 관내만을 흐른다고 하여 강이름에 지명을 붙인 국내 유일한 강입니다(서울강이 아니라 한강입니다. 춘천강이 아니라 북한

강입니다. 부산강이 아니라 낙동강입니다). 화양강은 바로 홍천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부르는 홍천강의 지류이지만 홍천이라는 동일지명으로 본류인 홍천강과 지류인 화양강을 혼재하여 쓰기도 하는데 이는 옛 고문헌의 지명 명칭에서도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화양강은 홍천읍 상류, 홍천강은 홍천읍 하류를 부른다고 하나 이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아래의 인용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홍천강 : 홍천의 젖줄인 홍천강(洪川江)은 홍천군 중앙부를 동에서 서로 흐르는 강으로 길이 143km에 이른다. 서석면 검산리 미약골 상류에서 발원한 강줄기는 내촌천으로 흐르면서 장남천, 야시대천, 풍천천, 덕치천을 합한 후 화양강을 이룬 후 홍천읍을 지나 오안천, 성동천, 어룡천, 중방천과 합류해 비로소 큰 물줄기를 이룬 다음 서면 마곡리를 지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과 춘천시 남면 관천리 경계에서 북한강의 청평호로 흘러든다. 명칭을 살펴보면,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리편과, 17세기 중엽에 저술된 지리지인 동국여지지 및 1765년경 8도의 읍지를 수집하여 편찬한 여지도서, 1817년경 편찬된 관동읍지에는 홍천강을 남천(南川)으로 표기하였고, 1831년경 강원감영이 관내 군현의 읍지를 모아 편찬한 관동지에는 화양강(華陽江)으로 표기하였다. 1861년 김정호가 관각한 대동여지도엔 홍천강(洪川江)으로 표기하고 있다.

홍천읍을 중심으로 상류지역은 화양강, 하류지역은 홍천강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홍천 읍내지역만을 화양강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상하류 구분하지 않고 모두 "홍천강"이라고 부른다(상하류 구분하지 않고 모두 "화양강"이라고 부르지는 않음……. 그러나 고문헌은 상하류 구분하지 않고 처음에는 "남천" 다시 "화양강"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모두 "홍천강"이라고 하였음. 인용자주).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고맙게도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지만 명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던 중 모 지방신문에 소개된 화양강의 이름이 사라진 연유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유를 알고 나서 는 몹시 씩씩해졌다. 그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홍천] 홍천강이 화양강이야? (2005-1-15 기사)

-홍천 주민, 1970년대 중반 개명 불구 아직도 혼선
`홍천강으로 불러야하나, 화양강으로 불러야 하나'.
홍천 주민들 사이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홍천강 이름은 원래 화양강이었는데 왜 홍천강으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또 어느 것을 써야 맞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화양강은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정부에서 추진한 누명(陋名: 내용이 아닌 발음이나 이미지상 나쁘게 느껴지는 오명) 바꾸기 운동에 따라 홍천강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양강의 발음이 화양년의 `화양'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외지에서 `홍천 여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워 화양강이라고 불리게 된 것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홍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이런 강 이름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던 중 마침 추진된 누명 바꾸기 운동 때 홍천강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홍천강으로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90년대 들어서부터이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아직도 지역에서는 화양강과 홍천강을 섞어서 부르고 있다. <洪川=金大中기자·djkim@kwnews.co.kr>

이렇듯 화양강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날의 홍천강이 되었지만 내 추억 속에는 아직도 화양강으로 남아있으며 그 화양강에 얽힌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한 토막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70년대에는 다 아시다시피 요즘처럼 놀이문화가 발달하지 못해 학교 운동장에 모여 작대기로 땅바닥에 금을 그어 놓고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려 격하게 몸싸움하다 흠바닥으

로 내동댕이쳐지는 오징어놀이, 사다리놀이 등과 같이 휴과 친하게 지내는 놀이를 주로 하는 게 그 시절 남자 아이들의 놀이였다. 여름 한 낮에 몸싸움 놀이를 하다가 더위에 지치면 포플러 나무 그늘에 웅크리고 모여앉아 팽파떡기놀이를 시작했으며 그것마저 싫증이 나면 집근처 강으로 달려가 멍을 잡고 놀았다.

다행히도 내가 어릴 적 살던 홍천은 지금처럼 읍내가 넓지 않아서 조그만 걸으면 버스터미널이 있는 중심가에 다다를 수가 있었고, 여기서 조그만 더 걸으면 군청에도 갈 수 있었던 아주 아담한 군 단위 소재지였다. 내가 살던 시절에는 홍천 읍내에 영화관이 2곳, 원래 홍천극장이 있었고 나중에 학다리에 중앙극장이 생겨서 2개가 되었고, 초등학교도 홍천 초등학교와 석화초등학교 2개가 있는 작은 도시였다.

따라서 홍천강이 어린 내 걸음에도 그리 멀리 않은 가까운 곳에 위치해, 홍천 읍내를 반으로 갈라 흐르고 있었던 터라 강원도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에 화양강은 우리들의 봄, 여름, 가을 휴양지이자 놀이터였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 지치기, 썰매타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요술주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 더욱이 넓은 백사장과 깨끗하고 풍부한 강물이 있어 여름에는 애, 어른 할 것 없이 미역을 잡고 노는 요즘 말로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화양강에서는 우연히도 매년 한 명씩 미역을 잡다가 외동아들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두고 어른들께서는 화양강 아래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나 목을 맨 여인네가 귀신이 되어 저승으로 가지 않고 한풀이를 하고 있노라고 전설 같은 하소연을 하시는 소리를 들곤 하였다.

남들은 재미있는 우스개 소리로 들릴런지 몰라도 나는 그 얘기를 믿었으며 그것을 믿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 옆집에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흠바버지와 딸 셋에 외동아들인 형이 살고 있었다. 그 형은 중학교 축구선수였고 신체적으로 아주 튼실해 잔병치레조차 없었다. 그러나 어느 여름날 축구연습을 마치고 그 귀신이 나온다는 연봉교 밀 강으로 축구부 친구들과 미역감다가 유일하게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고불고 통곡을 하는 가족들의 슬픈

장례식을 보면서 '진짜 외아들만 데려가는 물귀신이 있는 거구나' 하고 내가 흥전을 떠날 때까지 믿고 있었다. 축구선수라고 다 수영을 잘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운동선수였음에도 의사를 했으니까 말이다.

하여튼 그 시절 화양강은 이래저래 얽힌 사연들이 참 많은 시끄러운 강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화양강 우안으로는 흥천 읍내가 좌안으로는 연봉리가 위치해 있었고 그 연봉리에는 흥천에서 제일 큰 굴뚝을 가진 제사공장이 강 언덕에 떡 버티고 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도 그 당시 흥천에는 제사공장 외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공장에는 많은 누나들이 무척이나 하얀 작업복을 입고 산업의 역군임을 뽐내며 비단의 원사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누에의 실을 빼고 간간히 가지고 나와 조리해 주는 통통한 반대기의 맛은 가히 일품이었다.

화양강 강변으로는 비포장 신작로가 강변을 따라 놓여 있었고 주변으로 토마토 밭과 땅콩 밭이 많이 있었다. 신작로로 자동차가 지나갈 적마다 뽀얀 흙먼지가 폴폴 일어 그 일대 집들과 토마토, 땅콩 이파리에 내려앉아 온통 뿌옇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화양강 변에 토마토가 제법 윤기를 뽐내며 막 익어가려고 할 즈음에 동네 형들과 내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토마토 서리를 하려간 적이 있었다.

삼양라면이 10원 하던 그 시절, 먹거리가 풍부하지도 않았지만 모두가 살기도 빠듯하던 그때, 동네 형의 토마토 서리 제안에 모두들 동의하고 최대한 커다란 부대자루를 마련하고 한밤중 흥천여중고 운동장에 모였다. 아직 서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내 새가슴은 콩닥콩닥거렸고 토마토를 서리한다는 설레임에 작은 희열마저 느껴졌다. 칠혹같이 어두운 밤 우리는 먹이를 노리는 승냥이처럼 최대한 낮은 자세로 화양강 강변의 토마토 밭으로 기어들어갔고 가없는 토마토들은 사정없이 부대자루 속으로 선별작업도 없이 쓸어 담겨졌다. 한창 토마토 밭을 난장판으로 헤집어 놓고는 주인에게 미안한 맘도 없이 그곳을 빠져나와 서리해온 토마토를 먹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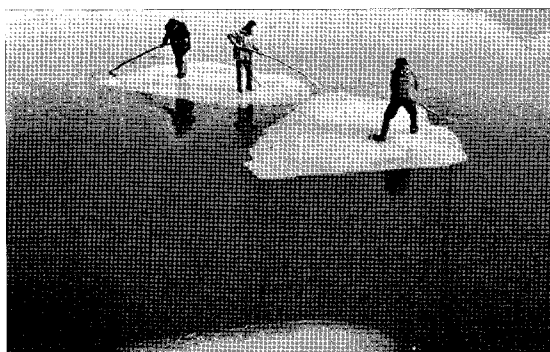
해 흥천여중고 운동장 한 모퉁이로 모였다.

내심 잔뜩 기대하고 쏟아 부었던 내 부대자루속의 토마토들은 전혀 먹을 수 없는 풋 토마토들뿐이었고 이런 현실에 난 무지 실망을 하고 말았다. 역시 서리하기가 처음이었던 난 도독질하기에 가슴이 작아 익은 토마토만 골라 따는 여유가 없었던 탓이었다. 그날 다행히도 동네 형으로부터 토마토를 두 개 얻어먹을 수가 있었다.

그 뿌연 흙먼지로 범벅이 된 토마토를 물에 행구지도 않고 옷에 쓰윽 닦아 먹으며 서로 즐거워했던 그 어린 시절. 인제를 거쳐 속초로 여행을 떠날 때 흥천의 화양강을 바라보며 지나치다보면 이런 어설플 서리 행각이 아련히 떠오르고 풋 토마토만 잔뜩 따왔던 순진함에 웃음이 저절로 흘러나온다. 고고한 달빛 아래 덩그러니 놓여 있는 토마토 밭에서 나 혼자 칠혹 같은 밤이라 생각하며 떨리는 새가슴 조여가며 먹지도 못하는 풋 토마토를 서리하는 꼴이라니…….

내 어릴 적 화양강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쫄쫄 언 겨울의 화양강이었다.

겨울이 되면 얼어붙은 화양강에서 창출되는 놀이문화가 무궁무진했기 때문이다. 썰매타기, 스케이트 지치기, 얼음판 위에서 한밤에 돌리는 강통쥐불놀이 등등 너무 재미있는 놀이가 많았다. 그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이면서도 어머니에게 가장 꾸중을 많이 듣던 놀이가 하나 있었다. 그건 얼음뗏목타기였다.



〈그림 1〉 얼음뗏목타기
출처 : <http://blog.naver.com/mamj8836>

추운 한 겨울이 지나가려할 즈음 따뜻한 기운에 쫄쫄 언 얼

음이 녹기 시작하면 화양강의 얼음은 고무얼음이 된다. 얼음 판 여기저기에서 쨍쨍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괴괴하게 들려도 개의치 않고 이 고무얼음 위로 뛰어다니면서 까불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여간 재미있는 놀이가 아니었다.

얼음뺨목타기 좋은 장소로는 희망리와 신장대리를 지나 북방면으로 올라가는 언덕 밑으로 화양강이 사행져 흐르는 데 이곳이 최고의 적지였다. 얼음 뺨목타기를 하는 날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큰 장대를 하나씩 들고 강가로 집결한다. 얼음뺨목타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두 패로 나누어 얼음뺨목을 고른다. 왜냐하면 얼음뺨목을 타고 상대방 얼음뺨목을 물속으로 밀어 넣기를 반복하여 얼음뺨목을 부셔버리는 전쟁 놀이를 하기 위해서 편을 가르는 것이다.

얼음뺨목의 노 젓기는 쉬운듯하면서도 어렵다. 처음에는 싱싱한 얼음으로 만든 뺨목이라 장대로 미는 대로 잘 떠다니지만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 물이 올라와 녹기 시작하면 좌초하는 배처럼 노 젓기가 여간 벅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노를 저어도 원하는 방향으로 얼음뺨목이 나아가지를 않는다. 앞에는 가라앉으면서 물이 올라오고 뒤는 들려서 노 젓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흐르는 물에 자주 접촉하게 되다보니 자연적인 해빙현상이 생겨 얼음뺨목이 갈라져 물에 가라앉게 된다. 한참을 얼음뺨목타기를 하다보면 얼음 위로 물이 올라와 신발과 양말, 바지가 젖게 되어 추위를 느끼게 된다. 강원도 흥천은 사방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지방이라 겨울공기 차기가 여간 매서운 게 아니다.

추위로 꽁꽁 언 바지와 신발을 말리려고 논두렁에 말라붙은 잡초에 불을 피운다. 그리고는 각자의 신발들을 나뭇가지에 매달아 불 위에 들고 서서 언 신발을 말리고, 그러다 보면 불이 탁탁거리며 된다.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 불티가 튀면서 옷에 구멍을 낸다. 그때는 나일론 옷들이 유행이라 바지고 윗저고리고 간에 불티만 튀면 무차별적으로 뺨뺨구멍이 나게 되어 그 옷을 다시는 못 입게 된다.

하루는 그 불티가 내 나일론 바지에 튀어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구멍을 내고 말았다. 어머니에게 혼날 생각을 하니 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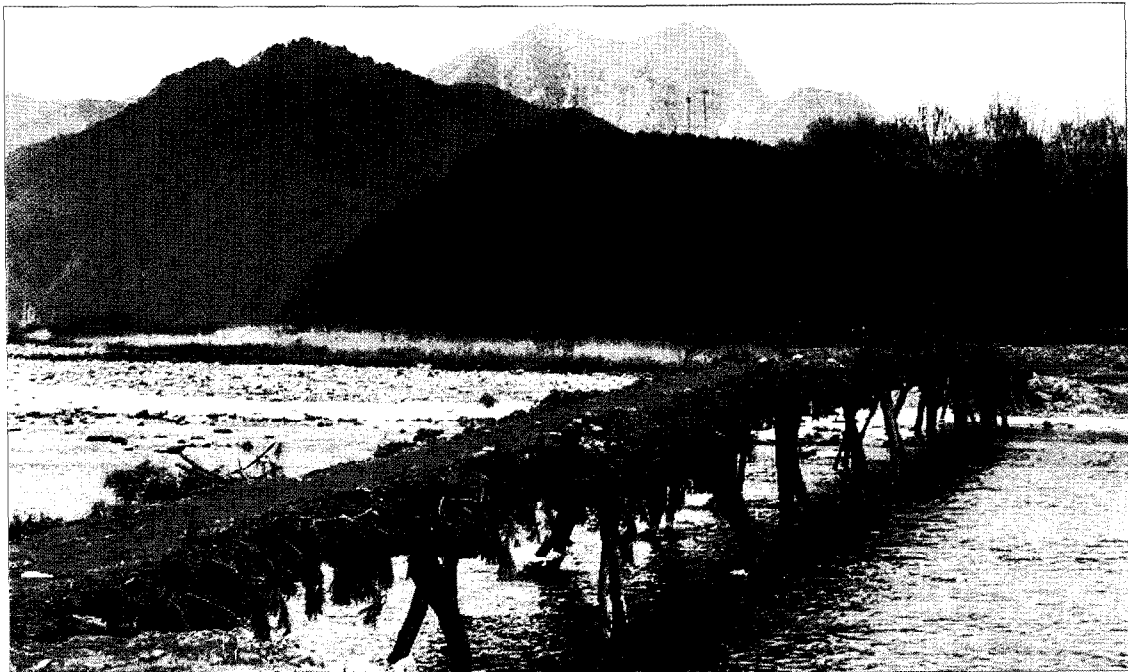
덜컹 났다. 이미 여러 번 바지에 구멍을 내어 어머니에게 흑독하게 혼이 났던 터라 집에 들어가는 게 마냥 싫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모면할 수 있을까 궁리궁리하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를 따라 집에 들어갔다. 아버지가 편들어 주시면 어머니가 화를 덜 낼 줄 알고, 그러나 구멍 난 바지를 기어코 어머니에게 들켰을 때 정작 아버지는 내 생각처럼 내 편을 들어 주시지 않았다. 내 판에는 상당히 고단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와 같이 들어갔다 해서 아랑을 베풀 어머니가 아니셨다. 옷을 못 쓰게 만든 죄로 매를 맞았지만 평소보다 덜 맞았다는 게 아버지랑 동행한 것에 대한 다소의 보답이라고나 할까?

얼마전, 아버지에게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시냐고 여쭙어 봤더니 관심도 없으신 듯 그런 일이 있었냐고 시큰둥하게 되물으신다. 나에게 엄청난 기억이었는데…….

지금은 화양강을 비롯한 많은 하천에는 번듯번듯하게 각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교량들이 들어서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하질 못했다.

대중가요에도 나오듯이 큰 강에는 나룻배가 사람과 짐들을 싣고 강을 건너 주었고 조그마한 하천에는 흥수 때 떠내려가도 무방한 썰다리가 놓여 있는 게 다반사였다. 화양강에도 연봉교 등 몇 개 교량을 제외하고는 흥천읍 구간 상하류로 썰다리가 추억처럼 놓여 있었다. 산에 넘쳐나는 소나무를 엮어서 발을 세우고 그 위에 소나무가지를 엮고 다니기 편리하도록 다시 그 위에 흙을 덮어 여름 흥수기 한 때를 제외하고는 제 구실을 다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손발이 되었던 썰다리 밑은 동네 아저씨들과 아이들의 고기잡이 각축장이었다. 다리 밑 그 맑은 물에는 요즘 들어서야 그 물고기들의 이름을 구분해서 알게 되었지만 피라미, 빠가사리, 송사리, 메기, 쉬리 등과 같은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았다. 갯목을 된장과 함께 개어 어항 입구에 바르고 그 밑에 놓아두었다가 썰다리 그늘 때문에 어항인줄 모르고 뛰어든 어리석은 고기들을 잡아 동네 아저씨들은 매운탕을 만들어 소주를 드셨고 매운탕꺼리도 안 되는 어린 새끼들은 아저씨들이 우리들에게 주어 그걸 갖고 노느라 온 몸



〈그림 2〉 싹다리

에 비린내가 덕지덕지 묻어나도 마냥 즐겁기만 했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떠들어 대면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강으로부터 아내려는 아저씨들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 고기가 잡히면 우르르 몰려가 구경하곤 하는 일이 해가 질 때까지 반복이 되었다.

싹다리는 홍수 때 떠내려가면 다시 소나무를 베어와 요즘 같은 대형공사에 대한 부담 없이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서 예전에 그렇게 만들었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강을 건너게 하는 그런 다리이다. 단순함 속에도 자연에 대한 순응의 미가 살아있는 다리가 아닌가 싶다.

여름밤 화양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우리 동네의 조그마한 시냇가에는 반딧불이가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 그 어린 시절에는 반딧불이의 가치를 몰라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정말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가했었다. 실험삼아 잡아 정말 불빛이 있는 콩무니가 뜨거운지 만져보기도 하고 기대 밖으로 하나도 안 뜨거워 실망하기도 했지만 반딧불이 콩무니의 그 노란 형광불빛은 정말 아름다웠던 게 분명했었다.

한 번 상상해 보시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면 마을 시냇

가에서 반딧불이 무리가 몰려나와 흥천 읍내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군무를 즐기는 모습을. 가히 이런 장관은 없을 것이다.

반딧불이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물이 깨끗하다는 걸 의미한다. 반딧불이는 인공적인 불빛을 싫어하고 애벌레가 청정지역에만 서식하는 다슬기를 먹고사는 특성 때문이다.



〈그림 3〉 반딧불이

이런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가 얼음 뗏목놀이를 즐겨 하던 북방면 언덕길 밑 화양강에는 맑고 깨끗한 강물과 풍부한 수량과 그 맑은 물길 속에 크고 작은 조약돌이 많았고 그 돌 밑으로 손을 넣으면 엄지손만한 다슬기가 한 움큼씩 올라

왔다. 다슬기는 하천이나 강의 바위나 돌 밑에서 주로 서식 하며 물살이 빠른 여울의 바로 밑 부분에서 큰 다슬기가 주로 발견된다. 또한 다슬기는 수온이 찬 곳에서 자란 다슬기 일수록 그 맛이 뛰어나다. 화양강은 강물이 맑았을 뿐만 아니라 수심이 깊고 깊은 계곡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관계로 수온이 낮아 맛있는 다슬기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 싶다.

물안경도 없이 물속에 침범침범 들어가 손에 느껴지는 감



(그림 4) 다슬기

각으로 건져낸 다슬기를 주전자에 가득 담아 보무도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놈들을 삶아 속살을 빼먹던 그 맛이란...

그 때 그 당시엔 최고의 주전부리였고, 두 번째가 연봉리 제사공장에서 나오는 번데기를 먹는 것이었다. 글을 쓰는 지금도 그 생각 때문에 입속에 침이 고인다.

가을이 되면 우리들은 화양강의 연봉교를 건너 원주방향에 있는 상오안리, 하오안리 넓은 논으로 떼 지어 몰려가서 메뚜기 잡기를 하고 놀았다. 우리들에겐 메뚜기 잡기가 가을 운동회 다음으로 풍성한 행사였다. 또 하나의 자연이 선사하는 공짜의 먹거리였기 때문이었다. 화양강 상하류로는 유난히 넓은 논들이 많았다. 그 논이 익은 벼들 사이로 메뚜기들이 넘쳐나 이리저리 쉽 없이 뛰어 다녔고 그 모습이 흡사어서 날 잡아 잡수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과도 같았다. 고즈넉한 가을 눈에 이름 모를 풀벌레 우는 소리조차 한적한데 메뚜기들의 환대에 마냥 신이 난 우리들은 메뚜기를 따라 이리

저리 뛰어 다니며 맨손으로 훑듯이 쓸어 담아 빈 소주병에 가득 채워 담았다.



(그림 5) 메뚜기

이렇게 하루 종일 메뚜기 잡기하느라 땀이 차서 얼굴은 얼룩덜룩하고 검정 고무신을 신은 발등 위는 까만 때가 끼여 볼성 사나와도 소주병 가득 채운 메뚜기와 병이 모자라 남은 메뚜기를 강아지풀에 꿰어 자랑스럽게 화양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메뚜기는 당연히 그날 저녁 밥반찬과 간식용으로 튀겨져 우리와 함께 했다. 튀긴 메뚜기 맛은 물론 요즘에 먹는 고급 아이스크림보다는 맛이 더하지는 않았지만 못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런 풍요는 다 맑고 깨끗한 화양강이 있어서 비롯된 게 아닐까?

우리 마실에 있는 화양강은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추억하게 하고 그리워하게 하는 흐르는 낭만과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다.

강원도로 여행을 가면서 잠시 둘러본 근자의 흥천은 많이 변해 있었다. 또 많이 발전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흥천 전통(?) 화로구이 고기집들이 도로 주변을 뒤 덮고 있는 풍경이 많이 낯설어 보였다. 차츰 익숙해지겠지만...

‘아주 맑고 깨끗한 화양강에서 만들었던 얼음뭉뚝타기, 다슬기와 메뚜기 잡기 등과 같은 자연이 베풀어 주는 낭만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문득 이런 의구심에 흥천을 둘러보면서 내가 추억할 수 있는 그리움 같은 화양강의 낭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기대해 본다. 🍀